

불자 세상보기



선업 스님
평행복지유센터 원장

매년 2월과 3월 한 달간은 연인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어 많은 연인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그런데 동시에 2월부터 3월까지 1개월간은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기간'이기도 하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다. 매년 7천 건 정도의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데이트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3년간 143명이나 된다. 소위 '사랑해서 때렸다'라는 데이트 폭력의 희생자는 대부분 여성으로 그럼에도 연인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타인의 개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 심각성이 인정돼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데이트 폭력(dating abuse)이란 서로 교제하는 사이에서, 둘 중 한 명이 상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의 위협 또는 실행으로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신

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폭력을 말한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성폭행, 성희롱, 협박, 물리적 폭력, 언어폭력, 정신적 폭력, 사회적 매장, 스토킹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데이트 폭력은 연령, 경제 수준, 사회 계층을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강박적으로 질투심과 소유욕이 강하며, 자신감이 지나치고, 감정 기복이나 폭력적 전격 또는 성마른(합울성이 없고 성질이 조급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동반자를 그 가족과 친구들과 동료들에게서 분리시키려 하고, 외부 스트레스 요인을 탓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남자 만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자존감이 낮아 남의 평가에 쉽게 화내는 남자, 소유욕과 집착이 심한 남자, 질투심이 높고 의심하는 남자, 충동조절을 못하고 음주 후 주사를 부리는 남자, 그리고 여자를 심하게 때린 적이 있는 남자"를 위험군으로 규정하고 있다.

불교적으로 보면 데이트 폭력은 바

르지 못한 사유에서 비롯된 것이며 탐·진·치 삼독심의 발로이다. 대표적인 데이트 폭력의 징후 중에서 '통제 권력적 행동'이나 '성적·물리적 데이트 폭력'은 상대를 감각적 욕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탐욕의 산물이며 '감정적 데이트 폭력'은 상대를 화풀이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고 '정신적 데이

일그리진 집착·소유욕이 데이트 폭력의 주요 원인
正見으로 연인과 소통해야

트 폭력'은 상대방을 폭력행사의 대상으로 삼는 어리석은 생각의 소산이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불교적 처방은 팔정도의 '정사유(正思惟)' 익히기이다. 정사유는 3가지 바른 의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해(無害)이다. 존재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를 반복하는 연민심 함양 훈련을 통해 상대의 소중함을 배우는 것이다.

두 번째 바른 의도는 '무진애(無瞋愛)이다. '무진애'는 "나는 당신에게 화내고 있지 않으며, 나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자애심의 훈련을 통해 상대에 대한 공감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바른 의도는 '무탐(無貪)으로 연인들 사이의 윤리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마음가짐이다. "나는 당신을 감각적 욕망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사유는 연인 관계를 통해 무소유의 공덕을 쌓고 본래면목을 회복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특히 '무탐' 훈련은 자신의 욕구를 상대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현대병의 근원을 무력화시키고 그 파생인 데이트 폭력을 원천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론이다.

임춘이 지나면서 곳곳에 연인들 가득한 장이 펼쳐진다. 이 틈을 노려 데이트 폭력이라는 어둠의 세력도 자리를 잡으려 한다. 이 때 3가지 바른 의도의 정사유를 마음에 장착한다면, 연인들의 만남은 존중과 공감과 배려 속에서 끈 끈감한 미소 꽃 가득한 데이트 축제가 될 것이다.

발언대

3·1절 불교계 항일인사 재조명

3·1절을 앞두고 일제시대 당시 항일운동을 펼친 불교계 인사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는 투옥 기록이 없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관련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오산 스님
경해만공선양회장

"총독부는 조선불교를 간섭치 말라. 우리 조선 승려에게 전부 맡기는 것만이 유일한 진흥책이다."

일본 강점기 서슬 시퍼런 조선총독에게 마작사 주지였던 만공 스님이 내린 불호령이다. 우리는 흔히 의승군이 라고 하면 임진왜란 당시 거병한 스님들을 떠올린다. 하지만 임진왜란 때 뿐 아니라 일제강점기에도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기까지 스님들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만해 한용운 스님이 상해임시정부 활동자금을 국내에서 모금할 수 있었던 것은 만공선사와 같은 스님들의 협조 덕분이었다. 조선총독부가 31개 본사 주지대회를 개최, 조선불교의 일본 화를 도모하려 했을 때 만공선사께서 분연히 단상에 올라 외친 '할'은 사명대사가 "조선에서 보배로 삼을 것이

있다면 그 목에 현상금이 걸려있는 가토 기요마사 당신의 머리뿐"이라고 한 것보다도 더 격렬한 정신적 폭탄투척이었다.

당시 만공선사는 "테라우치 전임 총독은 조선불교를 망쳐놓은 장본인인데 감사할 일이 없다. 내선일체를 강요하지 말고 조선스님들에게 맡겨두는 게 조선불교 진흥책이다"는 요지의 일장 연설을 했다. 가토 기요마사보다도 더 위세가 등등했던 식민지시절 총독과 치안감인 전임 테라우치 총독의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 이 연설은 목숨을 돌보지 않고 한 말이고, 일본인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는 점에서 사명대사의 일구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국가의 처신은 너무나 다르다. 선조는 사명대사를 비롯한 많은 스님들의 공로가 컸음을 인정하고 표창사를 지었다. 조선이 당시 유교국가였는데도 사명대사에게 비록 명예직

이지만 영의정에 해당하는 가의(嘉義)의 직위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펼친 스님들을 푸대접하는 현실이다. 특히 만공선사에게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예우조차 하고 있지 않다.

만공 스님은 의친왕을 비롯해 지역 독립투사였던 김좌진 장군, 만해 스님

투옥 기록 없다고 서훈 거부
많은 스님들이 활동 폼파 당해

등과도 깊은 교류를 했다. 이는 만해 스님의 상좌인 춘성 스님 등의 증언으로도 남아있다.

나라가 망해 임금이 없어진 탓인가. 건국 후 여러 명의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만가공공자를 살피는 일에 무능했다. 선조임금만큼은 힘을 기울인 지도자가 없다.

정부 측에서는 업적 자체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특히 투옥과 복역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서훈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독립운동가 서훈에 있어 투옥과 복역기록에 매달려서는 안 되며, 이러한 독립에 대한 기여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교계 내에서는 아직 기록에 남겨져 있지 않은 많은 스님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불교계 내에서도 독립에 기여한 스님들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일기를 기원한다. 이번만은 역사 바로 잡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만공선사의 벽력같은 **一**쪽 **손**살같이 날아 **마**나미 총독의 공동을 관통한다. **만**세 함성이 지축을 뒤흔든다. **기**미년 3·1 항일 독립만세 **만**공의 일함과 그 만세의 함성 **만** 역사에도 길이 빛나리.

데이트 폭력의 예방법은 '正思惟'

社說

불교계 독립운동가 재조명 돼야

3·1절이 한주 앞으로 다가왔다. 80년 전 오늘 태화관에 모인 33인의 민족 대표는 모두 종교단체를 통해 독립 선언에 참여했다. 일제의 단속을 피해 은밀한 조직 작업을 펼치기에는 비교적 탄압이 적던 종교 활동이 편했기 때문이다. 33인 중 불교계에서는 한용운 스님과 백용성 스님 등 2인이었다. 이외에도 비록 33인은 아니지만 그 주변에도 독립운동에 참여한 불교계 인사들이 더 많다. 세상에 활발하게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다. 당시 불교계는 전반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자금 등 활동을 지원했지만 잘 드러나지 않았다. 대표적 불교계 항일 인사인 한용운·백용성 스님 이외에도 독립운동자금 모연에 앞장선 백초월, 항일 비밀결사체 반당(卍黨)을 조직한 김법린, 기관지를 발간하며 항일운동을 펼친 김성숙, 조선총독앞에서 일갈한 만공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인물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은 원활치 않다. 비밀리에 간신히 활동하느라 근거자료를 잘 남기지 않던 독립운동 성격으로 인해 사료 적용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독립운동가 스님의 경우 문도나 제자들이 선양사업을 통해 활동상을 연구하지만 문도가 없는 스님이나 제자불자들에게 대한 조명은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3년뒤면 3·1 독립운동이 일어난지 100년이 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2019년까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을 편찬할 것이라고 밝혔다. 30권 규모의 인명사전에는 1만3000여 독립운동가에 대한 사상 및 이념·독립운동의 가치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잘 드러나지 않은 불교계 항일인사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이 제대로 이뤄지길 기대한다.

한반도 갈등, 원용·불이로 풀자

설 명절을 하루 앞둔 2월 7일 북한은 미사일 로켓을 발사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한국도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라는 강수를 뒀다. 남북 관계는 다시 경색 국면에 접었고, 올해 예정됐던 불교 통일운동단체들의 사업 계획도 무산될 상황이다. 당장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올 상반기 예정됐던 금강산 신계사 보수작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불교계 단체들은 정부에 대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불교계 대북 및 남북교류단체들이 입은 피해는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반대로 현 상황을 엄중히 분석·인식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의견도 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

은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대북 정책은 통일이 아닌 현상 유지와 분단 관리에 대해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합의를 기반으로 한 '선(先) 평화, 후(後) 통일'이 어렵다면 북한 세습 체제를 변화시킨 후 '선 통일, 후 평화'로 정책 노선을 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교계가 등한시하고 있는 스타민에 대한 포교를 강화해 그들이 통일의 선봉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 통일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동포를 끌어안고 갈등을 끝내기 위해서는 불교의 원용과 불이 사상이 필요하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알고, 화합할 수 있는 불교 사상이 한반도 갈등의 해법이다. 이를 위해 불교계도 노력을 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환

(우)03150 서울특별시 중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Table with 2 columns: Contact info (편집국, 광고국) and Website info (인사팀, 실시간 뉴스, 쇼핑몰)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광주전남지사, 전북지사

구독신청: 배달안내,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폭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유~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불교실전의식 학인 모집 범음.범법.작법에 관심있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수복불교대학에서는 포교활동 및 포교원, 사찰개원을 희망하는 분을 위하여 각 단 불교의식 및 기초교리와 교학등을 빠르게 습득하여

기문둔갑 강의안내 www.gimun.net 기문학의 제35대 전택자 민강 손혜림 직강 1 강의과목: 기문조식법과 원리론 및 기문명리 해단

2016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8기 수강생 모집 안내 그동안 제1기에서 제7기까지 전국에서 9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배우신 모든 스님께서 큰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심>